

#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역사의 서사화 방식 연구

이 현 석\*

## 차 례

- |                        |                        |
|------------------------|------------------------|
| I. 문학적 이념으로서의 ‘자유의 질서’ | IV. 내적 진실의 증명과 서술상의 불안 |
| II. 사건의 영역과 담론의 영역     | V. 결론                  |
| III. 공적 사실과 사적 진실의 대립  |                        |

## I. 문학적 이념으로서의 ‘자유의 질서’

초기 이청준 소설에서 반복적으로 다루어지는 주제 가운데 하나는 소설쓰기의 의미에 관한 것이다. 그는 글쓰기 행위에 대한 강한 자의식을 드러내는데 거기에는 그의 견고한 문학논리가 결부되어 있다. 그가 연작 <언어사회학 서설>의 세 번째 편인 <지배와 해방>에서 비평가 이정훈의 입을 빌어 전개하는 작가의 글쓰기 행위 속에 내재된 의미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작가는 현실에서의 실패와 소외로부터 자기구제를 꿈꾸는 존재로, 글

---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은 현실에서 이루어내지 못한 ‘자기 욕망의 실현’의 방편이자 하나의 내적 세계를 구축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복수’를 행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복수심이 지니는 자기 유평적인 부정성을 긍정적인 것으로 지양하고 자신의 삶을 해방시키는 글쓰기는 “자기 복수심을 이념화시키고 그것을 다시 보편적인 인간정신의 질서로까지 확대시켜 나가”는 방식으로서만 가능하다. 여기에서 ‘복수가 기여가 되어야 한다’는 이율배반이 생겨난다. 이 이율배반을 극복하는 방법은 개인적 복수심을 현실 독자에 대한 작가의 의미있는 지배로 전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배 행위는 현실에서의 권력이 행하는 지배와는 다른 것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삶의 진실’에 근거한 것인 동시에 끝없는 자기부정으로 의미화되는 ‘자유의 질서’로서의 지배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개인의 복수 행위로서의 글쓰기는 하나의 이념적 성격을 획득하는 바, 그것은 지배욕을 현실 속의 권력욕과 분리시키는 어떤 차원을 도입함으로써이다. 그것이 ‘자유의 질서’로 명명되는 끝없는 부정으로서의 윤리성이다. 이 엄격한 윤리성이 이청준의 소설에서 일관된 내적 논리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로 인해 독자에 대한 작가의 지배력은 하나의 해방의 기제가 된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기존의 질서를 대신하는 자유의 질서가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이 서사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는가 하는 점이다.

현실의 질서는 구체적인 사실들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비판의 내적 근거인 ‘자유의 질서’는 언제나 추상적인 차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하나의 역설이 잠재되어 있는데 그것은 자유와 질서가 가지는 상호배타성에 기인한다. 이 역설적인 의미 접합은 이청준 소설의 서사가 가지는 내적 긴장을 이념적 층위에서 결정짓는다. 끊임없는 자기 부정 행위로서의 자유와 행위를 고정하고 규정짓는 것으로서의 ‘질서’가 어떤 방식으로 ‘화해’할 수 있는가. 또한 자유가 무규정적이고 추상적인 반성이 아니라 하나의 질서를 통해 현실 속에 실

현되는 것이라 한다면 그것은 현실의 권력과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 이 물음은 작가가 자신의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그의 소설에서 '역사'가 형상화되는 방식과 그것에 부여된 의미의 추출을 통해 이 문제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역사 해석'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이청준 소설에 있어 역사는 공적으로 규정된 권력의 기록으로 의미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청준 소설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역사의 문제를 다루는 소설들은 연구의 중심주제로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연구의 주된 과제가 된 것은 크게 그의 소설이 가지고 있는 구성적 특성을 밝히는 작업과 그 주제적 특성을 밝히는 작업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주제연구의 측면에서 그의 소설에 대한 연구방향은 다음의 네 가지 하위범주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의 소설들에서 특징적인 오이디푸스적 상황에 대한 정신분석적 관점, 개인에 대한 사회의 억압의 문제를 중심화하는 이데올로기 비판과 관련된 연구, 문학과 예술의 본질과 관련된 주제, 어머니와 귀향의 모티프들에 대한 해석이 그것이다. 이러한 연구 관점은 텍스트의 주제적 특징이나 그와 관련된 방법론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까닭에 그 나름의 독자성을 구축해왔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역사의 범주는 포함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일차적으로 이 주제가 쉽게 기존의 문제 설정 속에서 해소되기 때문이다. 《춤추는 세계》(한국문학, 1977)를 “백제 유민으로서의 호남인의 정치적 좌절감”으로 해석하는 김병익의 관점<sup>1)</sup>이나 그것을 확대하여 “한국인의 의식 밑에 자리잡고 있는 정체 모를 아픔의 정체”로 파악하는 김현의 관점<sup>2)</sup>은 역사의 문제를 이데올로기 문제나 억압당한 민중의 한의 승화로 재독하게 만든다. 《흰옷》(문예중앙, 1994)을 셋김굿을 통한 해원의 과정으로 보

1) 김병익, 「전반적 검토-원체험과 지성의 변증」, 『이청준』(은애, 1979), 6쪽

2) 김현, 「이청준의 두 개의 장편소설」, 『김현전집 14』(문학과지성, 1987), 78쪽

는 정호웅의 관점도 이러한 해석의 연장선에 놓인다.<sup>3)</sup> 그런데 이러한 방식의 해석은 연구자들의 고유한 시각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텍스트 내의 해석적 유인에 의해 이끌린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해석들은 이청준이 제기한 문제의식 내에서 그 해석을 분석해 들어감으로 해서 도출된 것이다. 이청준이 등장인물들의 입을 통해서 문제화하는 사건의 본질에 대한 해석들이 그와 같은 비평적 입장의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역사의 문제를 다루는 소설들이 그 주제적인 측면에서 고유하게 다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내적 기제란 무엇인가. 먼저 이청준 소설에서 서사는 역사 자체의 사실성에 천착하지 않는다. 그의 소설에서 역사적 사실은 서사의 중심에 설정된 주제를 위한 배경 요소 이상의 의미를 부여받지 못한다. 예를 들자면 《춤추는 사제》는 백제의 멸망과 의자왕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 천착하는 윤지섭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윤지섭은 백제 의자왕의 왕릉을 발견하지만 곧 그것이 후대에 꾸며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속에 숨겨진 민중들의 염원을 백제문화제를 통해 되살려 보고자하며, 끝내는 의자왕과 같이 백마강에 투신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이러한 전체 서사에서 문제적인 부분은 기존의 백제사나 숨겨진 사실들의 복원 혹은 역사 사료에 대한 해석 등에 인물들의 관심이 놓여 있지 않다는 점이다. 소설은 그 거짓된 역사가 공식화된 백제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에서 다시 출발한다. 윤지섭은 가짜 왕릉 속에 내포된 민중의 염원을 읽어내고자 하며 그것이 비록 거짓된 것이라 해도 그 속에 잠재된 백제민의 한은 거짓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그로부터 그는 기록된 역사와는 다른 의미의 역사에 대해 반성해 나간다. 이러한 전환에서 역사 자체보다는 역사에 의미를 부여하는 인물들의 해석행위가 중요한 것이 된다.

또한 그의 소설에서 역사의 공간은 언제나 사건의 배경적인 자리에

3) 정호웅, 「셋김곳의 새로운 형식」, 『흰옷』, (열림원, 2003)

머문다. 초기 단편인 <침몰선>은 한국전쟁 당시 침몰한 배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 정체가 무엇인지 인물들의 의견은 분분하고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 때마다 각기 상이한 자신들의 해석을 내놓는다. 여기서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의 개별 사실은 사상되고 전쟁의 상황만이 문제적인 것으로 부각된다. 이는 그의 소설에서 역사의 공간이 재현된 사실성과는 무관하게 주제에 종속된 것으로만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청준의 소설에서 한국전쟁의 상황을 다루는 일련의 작품군들은 좌우이념 대립의 문제와 관련하여 첨예한 정치적 비판을 의도하지 않는 특징을 보여주는데, <숨은 손가락>의 경우 흑색군과 청색군의 대립이 알레고리적 관계로 형상화되고 있다. 명백히 한국전쟁의 상황을 암시하고 있는 청색군과 흑색군의 대립이 남북한의 관계를 지시하고 있다는 점은 서사 전체 상황에서 쉽게 유추될 수 있다. 하지만 서사의 중추적인 부분은 한국전쟁의 보편적 상황보다 그 사건 속에 개입된 한 개인의 해석적 행위다. 서사는 전체 역사현실보다 한 문제적 개인의 행위를 초점화한다. 흑색군이 점령한 마을로 진격하는 청색군의 중대장 나동준과 자신을 배신한 친구인 흑색당 위원장 백현우와의 대립관계가 이념대립보다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고 그것은 존재론적 문제로 쉽게 전이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역사적 소재가 지니는 보편적 사실성이 특정한 한 개인의 개별적 상황이라는 특수성에 의해 후경으로 밀려남과 동시에 개별주체에 의해 ‘해석된’ 역사적 진실이 전면에서 부각되도록 하는 방식은 그의 전체 작품 경향에서 일관되어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그것은 복수가 기여가 되어야 한다는 이율배반의 논리, 개인의 복수심이 자유의 질서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역설적 논리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이청준의 문학논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그의 관점을 통해 보다 극명히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역사적 소재를 다룰 때 주제와 그 주제를 형상화하는 서사적 상황 사이에서 보여지는 괴리는 이청준 소설

특유의 서술상의 불안정성을 초래한다. 본고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이처럼 역사적 소재를 다룰 때 보이는 이청준 소설의 서사구성상의 특징적 면면들과 그로 인해 구현되는 주제의 형상화 방식이다. 또한 이러한 분석의 결과로서 역사를 바라보는 이청준의 관점이 전체 서사에서 어떤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사건의 영역과 담론의 영역

이청준의 소설에서 역사적 사실들은 단편적이고 대략적인 형태로 주어지는 특징을 보인다. 이것은 역사 해석이 텍스트의 주된 관심이 되지 않는 소설들에서도 특징적이다. 특히 초기소설에서 두드러지는,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노출되는 텍스트에서 그 현실은 하나의 사건의 해석적 단서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가수>(월간문학, 1969)에서 주인공 주영훈이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는 대목에서 등장하는 4. 19의 테모 장면이나 <황홀한 실종>(한국문학, 1976)에서 윤일섭이 정신과 의사에게 털어놓는 과거의 사실 속에서의 4. 19 장면처럼 사회적 현실은 주인공의 의식 속에서 잠재화된 것으로만 주어진다. 이 때의 현실은 주인공이 현실 밖에서 자신의 위치를 상실하게 만드는 트라우마이지만 서사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않는다. 4. 19 당시의 경험이 주요 인물의 분열적 증세를 일으킨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소설은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이 점을 작품<가수>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수>의 즐거리는 자신의 이름을 빌려준 주영훈이 자신의 이름으로 삶을 대신 살아간 다른 주영훈의 여정을 반복하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으려는 노력이 어떻게 실패하였는가하는 점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가수상태에서 기차길을 걸어가다 죽은 두 주영훈 의삶이 기차

기관사, 잡지사의 동료, 죽은 주영훈의 아내, 기자, 사건을 다루는 검사 등의 관점으로 재구성되지만 그 죽음의 진실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여기에서 사건 전체를 지배하는 ‘가수’ 상태가 무엇인가 하는 점은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네, 가수 상태 말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반드시 기관사들만 가수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영훈을 포함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제각기 자기의 생에 대한 어떤 가수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 그렇다고 저는 지금 그 가수 속의 생이라는 것을 매도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가수에 빠져서도 절대 실수는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납득한 정확한 행위를 한다거든요. 다만 뒤에 가서 그것을 잘 생각해내지 못할 뿐이지요. 역설적으로 말해서 생의 가수 상태란 그러니까 그가 열심히 그리고 정직하게 그것을 살고 지키려고 했다는 말이 될 수도 있지요. 바로 영훈의 4.19가 그런 것이었다고 해도 상관없겠지요. 그러서는 가장 절실하고 순수한 생의 포즈나 동작으로서 말입니다. 어쨌든 영훈은 그때 그런 가수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의 이름을 준 거지요. 영훈이 자기 행위를 후회하지 않았다는 것도 아마 그 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수 중의 일을 다시 기억해낼 수는 없었던 거지요. 그러다가 그는 나중에 다시 그 가수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운평의 철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는 분명 새로운 가수 상태 속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것만은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sup>4)</sup>

잡지사 동료인 허순의 말을 통해 본다면 가수는 그 시대의 모두가 빠져들어가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4.19의 정치적 현실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실패한 혁명 뒤에 남겨진 세대의 시대적 방향 상실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텍스트에서 제시된 설명을 통해 볼 때 4.19 자체가 이미 해석될 수 없는 사실의 덩어리이고 그 속에서 주영훈의 “순수한 생의 포즈”가 취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 가수 상태 속에

4) 이창준, 「가수」, 『에언자』 (열림원전집, 2002), 123쪽

서 주체는 역설적으로 “열심히 그리고 정직하게” 행위를 수행한다. 가수 상태 속에서 그 자신은 행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 납득한 정확한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주영훈 자신도 그리고 동시대의 어느 누구도 포착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모두 각기 “생에 대한 어떤 가수 상태”를 살아가는 것이며 그것은 서사 속에서 주영훈의 사건을 재구성해보려는 모든 해석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들의 노력은 사건의 진정한 의미에 도달할 수 없으며 주영훈이 행한 행동들의 의미도 포착할 수 없다. 잡지사 동료인 허순은 주영훈에 대한 자신의 소설이 다분히 상상에 기초한 것임을 강조한 뒤, 주영훈의 행동의 이유를 주영훈 자신도 알지 못했을 것임을 그리고 그것을 허순 역시 찾을 수 없었다고 말한다. 그것은 직접 지시할 수 없으나 느껴질 수 있는 ‘외로움과 피로감’과 같은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영혼을 포함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제각기 자기의 생에 대한 어떤 가수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라는 허순의 말 속에 내포된 감각이 이와 관계된다. 그것은 실패한 민주주의 혁명의 문제를 간접적으로 지시하는 동시에 또 한편 삶의 실존과도 맞닿는다. 이것은 이청준이 초기 소설의 주제로 반복적으로 제시한 ‘환부를 알 수 없는 고통’과 같은 실존적 아픔을 이룬다.

다시 말하자면 이청준의 소설에서 제시되는 사회적 상황은 깊은 정치적 함의를 시사함에도 그것은 쉽게 다른 해석적 영역으로 전이된다. 이것은 구체적 사실들과 대비되는 자리에서 설정되는 주체의 내적 진실이라는 측면이다. 그의 소설에서 현실은 서사 외부에서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점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하나의 참조점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현실 자체에 대한 구체적 논변을 대신하는 것은 그 내적 의미이다. 구체적 사실과 주체 내적 진실은 상호대립항으로 불화하며, 여기서 보다 우위를 점하며 강조되는 것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해석적 영역, 즉 주체 내적 진실에의 조명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서사 구조적으로 접근해보아야 할 어떤 해석적인 지점이 있다. 그의 소설에서 사건 속 주인공은 부재하며 또 외부에서 그 사건을 간접적으로 증언하는 인물들의 시선에서도 그 사건은 포착되지 않는다. 사건을 그 자체로 의미화하는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건의 편린만이 해석의 단서로 주어지는 것은 이청준 소설의 고유한 서사구조적 특징이다. 사건은 괄호쳐진 상태로 제시되며 그 사건의 사실성에는 텍스트 내에서 어떤 해석도 접근할 수 없다. <가수>나 <매잡이>, <줄광대> 등의 텍스트에서 사건 속 주인공은 죽었거나 침묵하며, <소문의 벽>, <황홀한 실종> 등의 텍스트에서 주인공은 분열증 증세에 사로잡혀 있어 자신을 대변할 수 없다. 이 때 주체화되는 것은 사건의 부재하는 실체성으로, 그것은 '볼 수 없으나 느낄 수 있는' 무엇으로만 제시된다. 주변인물의 증언, 그 사건을 재구성하는 소설, 사진 등으로 제시된다고 해도 그것은 사건의 파편적 일면만을 보여줄 뿐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방식이 가능하다. 첫째 그의 소설의 배경을 이루는 역사적 현실은 작가의 현실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물음에 답하는 방식이다. 그가 끊임없이 사회적 억압에 시달리는 인물들을 그려내고 있으며 그것이 그의 문학적 노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의 소설에서 비가시적 권력에 의해 고통받는 인물들에 대한 서사가 전깃불 모티프를 중심으로 하나의 계열을 이루고 있는 것이 그 한 예이다. 이는 김현이 지적한 것처럼 주체와 세계의 대립이라는 이원대립적 세계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 보거나<sup>5)</sup> 또 한편 이청준이 추상적인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있어 적극적인 현실 참여로 간주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sup>6)</sup>은 이와 관련된다. 이것은 작가의 세계

5) 김현, 「대립적 세계인식의 힘」, 『이청준』 (은애, 1979)

6) 윤지관, 「억압사회에서의 소설의 기능」 (실천문학, 1992. 봄호)

윤지관은 그의 소설을 자유주의 문학 내적인 한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는 그의 소설이 현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천적인 면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80년대 이후로 점차 내적 반성의 문제로 전화

관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비평적 개입은 가치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그의 소설 텍스트에 내재된 의미론적 관계와 서사구조적 성격이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텍스트 속에서 구성하는 데 실제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그것이 주제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관점은 이와 달리 서사론의 영역에 속할 것이다. 따라서 두 번째 해석방식은 먼저 그의 소설을 의미론적 대립관계 내에서 규정하고 그것이 그의 서사구조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능하는가 하는 점에 답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 이창준 소설의 서사구조적 특성들은 사건의 주체가 부재하는 자리에서 그 사건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인물들에 의해 전개되는 해석적 개입이라는 형태로 압축할 수 있다. 이같은 이창준 소설의 서사구성상의 특징들과 그로 인해 구현되는 주제의 형상화 방식은 그 대상이 역사적 사실일 때 더 문제적인 것이 된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의 영역을 재의미화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 Ⅲ. 공적 사실과 사적 진실의 대립

초기 소설들에서 다루어진 주체 내부에 존재하는 실존적 아픔의 문제는 점차 사회 현실의 영역으로 옮겨올수록 협소해진다. 그리고 이러한 실존의 문제를 대체하는 것은 개인을 억압하고 고통받게 하는 힘으로서의 사회적 억압과 권력의 문제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주체의 강조점이 주체의 실존으로부터 그를 둘러싼 사회현실로 옮겨갔다는 점이다. <소문의 벽>(문학과지성, 1971)에서 명시적으로 제기되고 《언어사회학 서설》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글을 쓸 수 없게 만드는 모순된 사회현실이라는 점이다. 어둠 속에서 진술을 강요하는 전깃불의 상징이

---

됨으로 해서 초기소설이 가지고 있었던 4. 19의 시대정신과 관련된 날카로운 비판의식과 멀어지게 되었음을 지적한다.

나 더 이상 연주하지 못하고 조율만을 해야 하는 사람들의 우화가 보여 주는 것 역시 개인을 억압하는 억압적 권력의 문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초기소설인 <매잡이>에서 민형이 소설을 쓸 수 없음과 이후의 <소문의 벽>에서 박준이 소설을 발표할 수 없음은 다른 차원에 놓여 있다. <매잡이>에서 매잡이의 침묵과 민형의 자살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장인의 소외를 지시하는 것이라면, <소문의 벽>에서 소설가 박준을 분열증적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은 그에게 진술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그 진의를 파악하고 검열하고자 하는 보이지 않는 사회의 시선이기 때문이다.

이청준 소설의 역사의 문제가 하나의 주제계열로 자리잡는 것도 이러한 변화와 연동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주제적인 측면에서 사실을 넘어선 내면의 진실을 현실 속에서 실체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청준의 소설에서 역사의 문제는 시대적 총체성과는 무관한 자리에 있다. 역사적 사실들이 소설의 배경에서 그려지지만 그것은 그 사건이 발생한 현장의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사실과 진실의 대립관계를 통해 사실보다 진실이 더 의미있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으로 제시된다. 이에 따라 역사적 사실의 문제는 주체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만 의미를 부여받는다. 역사의 문제가 그 역사 전반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포된 진정성을 문제 삼게 될 때 서사 속에서 드러나는 역사의 객관성은 다분히 일면적인 것이 된다. 공식화된 역사 속에 기입되지 않는 진실을 드러내는 것은 따라서 파상적인 역사를 전복시키는 내적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역사가 아무리 있어온 사실을 바탕으로 한 과거사의 기술이어야 한다고는 하지만, 그러한 기술이 여차피 전면적 과거사의 재현이 될 수가 없을 바엔 그러한 과거사들 가운데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선택과 해석의 기술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한 선택과 해석을 앞설 역사의 진실이라는 것이 따로 있을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

고 그러한 역사의 진실성에 관련해 말씀드리다면, 낙화암 전설에 앞설 아픔의 이야기도 백제사에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sup>7)</sup>

인용한 부분은 백제사의 문제를 다룬 《춤추는 사제》에서 윤지섭이 자신의 역사관을 설명한 부분이다. 그의 관점에서 단순한 ‘과거사의 진실’은 거기에 가해진 ‘선택과 해석’에 의해 기술되지 않는 한 의미가 없다. 그리고 ‘선택과 해석을 앞설 역사의 진실’이라는 것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면 그것은 기술되는 대상으로서의 과거가 그 해석에 의해 항상 재구축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객관적인 실재로서의 과거는 어떤 ‘사실들’을 단순히 지시하지 않는다. 과거는 현재의 시점에 의해 재해석될 때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는다. 또한 과거의 사실은 ‘진실’을 위한 것일 때만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민중들의 염원이 만들어낸 거짓 역사의 기록은 사실 이상의 가치를 부여받게 된다. ‘전면적 과거사의 재현’이 불가능한 것이라면 그 불완전한 재현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다. 또한 하나의 사실은 완전한 것이 아니며 더욱이 완전성은 어떤 이데올로기적 조작에 의해 주어진 것일 수 있어서 거기에는 ‘어떤 논리의 거짓과 범죄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sup>8)</sup> 이러한 사실과 진실의 구분은 그의 소설에서 역사적 사실이 그 자체로는 어떤 의미를 지시하지 않는 것임을 보여준다. 사실과 진실의 대립 구

7) 이창준, 『춤추는 사제』 (열림원전집, 2002), 97쪽

8) 이러한 논리는 자신을 납치한 범인의 기이한 자살에 대해 증언해야 하는 가수의 이야기를 다룬 『제 3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된다. 사건의 진실은 ‘공식적 설명’로는 표현할 수 없으며 ‘심정적 고백어’를 통해서만 제시될 수 있다는 백남희의 주장 속에는 공적 사실을 넘어서는 사적 진실의 우월성이라는 이창준의 고유한 해석이 내재되어 있다.

“하나의 사실이란 것은 우리가 듣고 보고 생각해온 것처럼 그렇게 완전한 것이 아닐지도 몰라요. 완성된 것은 그 말이나 논리일 뿐 사실이나 행동 자체는 아닐 수도 있을 거란 말씀이에요. 완성된 것처럼 보이는 곳에 오히려 어떤 논리의 거짓과 범죄의 가능성이 많을 수도 있겠구요.”

이창준, 『제 3의 현장』 (열림원전집, 2002), 102쪽

도 속에서 역사적 사실은 언제나 해석되어야만 할 질료적인 것에 머문다. 그런 의미에서 이청준 소설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 속에 잠재된 어떤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갈등의 요소를 해소시키는 이러한 진실에 대한 요청은 그의 후기 소설에서 두드러지는데 초기 소설들에서 사건의 본질이 언제나 '나'로 대변되는 화자의 상처를 환기시키는 것으로만 작용했다면 여기서 사건은 그 진리성을 가시화함으로써 그것을 보편의 문제로 치환시키고 그것이 개별 주체만의 문제가 아님을 역설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그것은 객관적인 것으로 제시된 역사를 넘어 '배반의 역사'를 연출해 보이고 그를 통해 감추어져 있던 민중들의 염원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록과 유적들로 보존된 역사가 양지의 역사라면 전설과 민담의 그것은 음지의 역사"일 수 있다. 양지의 역사가 승자에 의한 이데올로기적 조작과 왜곡을 가한다면 음지의 역사 또한 '스스로의 진실을 위한 비사한 왜곡'을 감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름을 알 수 없는 민중들에 의해 만들어진 가짜 의자왕릉으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역사를 해석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새롭게 전유하고 이를 통해 다시 쓰여진 역사의 의미를 조명하는 이러한 과정에는 이념적인 가치판단이 개재되어 있다. 그 가치판단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텍스트상에서 나타나는 것은 익명적인 존재로서의 민중이다. 그런데 개인을 억압하는 사회가 추상적인 실체로서만 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민중 역시 비가시적인 실체로서 존재한다.<sup>9)</sup> 이들은 자신의 관점을 직접적으로 제시하

9) <비화밀교>에서처럼 어둠 속에서 햇불 행렬을 이루는 얼굴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을 밝은 빛 속에 드러내지 않는다. 그것은 곧 조선생이 소설가인 '나'에게 암시하는 '사실을 절대로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질과의 배반'이라는 이율배반과 연관된다. 그것은 드러내되 그 진실을 공식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진실을 '암시'적으로 전달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청준, 「비화밀교」, 『비화밀교』 (나남, 1985), 217쪽

지 않는다는 점에서 초기소설에서 보인 부재하는 사건의 주체와 같다. 그런 점에서 음지의 역사는 사적인 진실을 담지한 해석자의 관점에서만 의미화될 수 있다. 이 해석자의 위치는 이청준 소설에서 일관되게 유지되는 것으로, 근원적으로는 ‘복수로서의 글쓰기’라는 기본 전제에 은밀하게 맞닿아 있다. 민중의 한을 대리하면서 백제문화제의 왕실 가장 행렬에서 의자왕의 비극을 재현하고자 하는 윤지섭은 스스로 백마강에 몸을 던짐으로써 역사 이면의 진실을 드러내고자 한다. 그의 비극적 죽음을 통해 패배한 역사로서의 백제사 속에 내재된 민중의 깊은 한이 형상화되며 그것이 소설의 전체 주제를 구성한다. 이러한 주제 구현의 방식을 통해 이청준은 역사를 재사유하는 문체적 인물의 행동 내부로 의미를 응축시킨다. 역사적 사실은 구체적 사실 관계 내에서가 아니라 인물의 해석적 힘에 의지한다. 이때 문체가 되는 것은 민중의 추상적 염원이 이상징적 사건 속에서 빛을 발할 때 공식 역사가 해석의 기능적 요소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미에서 민중 역시 일면적 의미를 부여받는 기능적 요소라는 점이다. 이는 《당신들의 천국》에서 나환자들이 익명적인 모습으로 조백현 원장에게 대항할 때 보건과장 이상욱이 자신의 논리로 그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달리 말해 이 민중은 윤지섭의 욕망을 대변하는 존재 이상으로 텍스트 내에 자리잡지 못한다. 그들은 언제나 추상적인 실체로서만 그의 논변 속에 등장한다.

윤지섭의 치열한 역사의식은 따라서 그의 해석적 구축력에 의존할 뿐 역사적 사실 관계에 토대하지 않는다. 의사왕릉을 만들어낸 익명의 존재들이 역사의 진정한 이념적 담지자라는 주장은 그의 상상력에 의지한다. 공적 사실과 사적 진실의 대비 관계에서 이 사적 진실의 층위는 언제나 타자화된 방식으로 제기된다. 액자 구조 속에서는 부재하는 사건의 주체를 대신하여 해석하는 관점으로, 그리고 역사적 공간에서는 익명적인 민중의 관점을 대변하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이 해석적 욕망은 그의 소설 속에서 강박적으로 되풀이되는 ‘증명’에의 욕망이라 할 수 있다. 이 증명

에의 욕망이 역사적 공간에서 현재화될 때는 공적 사실과 사적 진실의 대위법에서 기묘한 전도가 나타난다. 《춤추는 사제》에서 백제사의 문제가 지나간 과거를 재구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닫힌 사건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빨치산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숨은 손가락>의 경우는 한국전쟁이라는 텍스트 내적 현재 상황을 기반으로 한다.

청색군의 진격으로 삼성리 마을이 흑색군 치하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흑색당의 위원장 노릇을 하였던 현우와 청색군 중대장인 동준은 재회한다. 흑색군의 점령 하에서 현우는 지주의 아들인 동준을 돕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동준으로 하여금 자신의 삼촌을 직접 반동분자로 지목하게 만들었다. 동준은 이제 현우로 하여금 그 스스로 자신의 동지들을 배반하는 자리에 서도록 만듦으로써 복수하고자 하지만 현우는 계략으로 자신이 다시 배신자의 위치로 전락하게 된다는 전체 서사는 명백히 한국전쟁의 상황과 유비되고 있다. 소설의 서사는 인민군과 한국군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념적 선택을 강요받았던 사람들의 내적 고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소문의 벽>에서 한밤중 들이닥친 사람들이 비추는 전깃불 앞에서 선택을 강요받았던 박준의 어릴 적 경험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주제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현우가 모든 일을 꾸미고 그 속에 동준이 말려들어간 상황에서 진실은 밝혀지지 않으며 왜곡된 사실 관계 속에서 동준은 자신의 진실을 보여주지 못하고 끝내 자살에 이른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공적 사실과 사적 진실의 대위법이 놓여 있다. 이는 이청준의 소설에서 역사가 맥락화되는 방식을 밝히는 단서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자네에게 언제부터 그런 평등주의의 꿈이 있었나?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자네를 끌 수가 있었을까? 아니 그보다도 자네 자신이 정말로 그 만인과 똑같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자네는 이미 자네의 교육으로 하여 그 만인의 어깨 위로 의식이 상승해 버린 처질 텐데?”

당시로선 그리 흔치 않은 교육 이수 과정에서 익혀졌을 현우의 마음

속 선민의식을 겨냥하며 동준이 못 믿겠다는 듯 추궁해 들어가자, 그가 이번에는 좀더 허심탄회하게 자신을 털어놓았다.

“나를 너무 그런 낭만적 이념가로 보지 말게. 세상에는 더러 그런 사심 없는 공의(公義)와 천부의 이데올로기스트들도 없는 건 아니지만, 대개는 그저 자기 개인의 숨은 이해에서 출발하여 거창한 이념의 의상을 마련해 입고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 하더라도 세상에선 그것을 굳이 구분해 보려고 하질 않을 뿐이지. 그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이념주의자들의 전략상의 목적이니까. 나도 이를테면 그런 전략적 이데올로기스트의 한 부류인 셈이지. 나는 무엇보다 나 자신의 개인적 원망과 갈등에서 그와 같은 의상을 나의 보호벽으로 선택했지. 사는 방법도 마음먹기 따라선 다른 사람들에 비해 평균치 이상의 상승이 가능할 거구. 하지만 내겐 내 아래쪽의 만인보다도 내 위쪽의 한 사람이 늘 문제였어. 한 사람이 늘 내 위에 있었거든. 나는 결국 그와 같아지기 위해 나의 아래의 만인과 함께 되기로 한 것이지. 내가 그렇게 됨으로써 비로소 그에게도 그것을 주장할 수가 있거든.”<sup>10)</sup>

이 대목은 동준이 현우에게 왜 그가 평등을 주장하는 흑색당의 이념주의자가 되었는가를 묻는데 대한 현우의 대답 부분이다. 이념은 ‘사심 없는 공의’가 아니라 언제나 ‘개인의 숨은 이해’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현우는 동준에 대한 열등감으로부터 이념적 선택을 행한다. ‘개인적 원망과 갈등’이 현우로 하여금 이념적 허울을 쓰게 만드는데 그것은 동준을 극복하는 수단적인 방편인 셈이다. 중요한 것은 이념이란 그의 관점에서 보면 사적 이해 이상의 의미를 부여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념적 대립을 사적인 원한 관계로부터 방향을 잡아나가는 이러한 방식은 앞서 살펴보았던 글쓰기의 시원으로서의 복수와 지배 그리고 그 해방의 논리의 음화वाद과 같다.<sup>11)</sup> 현우가 동준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10) 이청준, 「숨은 손가락」, 『숨은 손가락』 (열림원전집, 2002), 153-154쪽

11) 이것은 이청준이 「지배와 해방」에서 자신의 문학이 복수 행위로부터 비롯된다고 정의하는 것과 같은 논리의 연장선에 있다. 그는 글쓰기란 자신의 억눌린 현실에 대한 복수행위로부터 출발하며 그것을 공적인 것으로 승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독자에 대한 지배행위가 되는 것인데, 정치적 권



념을 택한다는 논리는 사실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묘한 전도가 있는데 현우는 그의 소설 속 주인공들이 시달리는 자기 증명에의 욕구를 부정적인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체 내부의 악한 의도와 선한 의도 사이에 그 둘을 구별할 어떤 근거도 없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내적 진실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 까닭이다.

달리 표현한다면 주체의 내적 진실은 그 숨은 의도가 타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읽혀질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불안정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의 소설들에서 주어진 사건을 해석하는 모든 인물들의 내면에는 자신의 진실이 증명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내재해 있는 것이다. <숨은 손가락>의 주인공 동준이 소설의 결말에서 밀고자라는 오해를 풀지 못하며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지 못한 채로 자살한다는 점은 그런 의미에서 시사적이다. 이청준의 소설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이 증명에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인물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 욕망은 텍스트 전면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서술의 양태 속에, 수사학적 논변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인물의 내적 의식에서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전체의 서술 양상 속에 착종되어 있다는 것을 보기로 한다.

#### IV. 내적 진실의 증명과 서술상의 불안

70년대 후반 이후 이청준의 소설들에서 반복되는 것은 현실과의 화해라는 주제이다. 그것은 해원과 한의 승화라는 과정을 공통적으로 보여준

---

력과 다른 점은 끊임없이 자신을 부정하는 내적 '자유의 질서로서의 지배'한다는 점이다. 글쓰기의 출발점이 개인의 사적 욕망에서부터 시작되고 그것이 객관적 사회질서를 넘어선 관념적 자유에 의해 성취된다는 이 논리는 그의 소설의 핵심적 논리라 할 수 있다.

다. 여기에 서사가 정향해가는 주제화의 방향과 서사의 수사적 층위에서 형성되는 의미화 사이의 비대칭성이 생성된다. 그것은 서사화의 주체들의 타협하지 않는, 극히 관념적이기까지 한 일관된 태도와 역사 속에서 화해를 추구하는 주제 사이의 불협화음이라 할 수 있다.

이청준의 텍스트에 내재하는 근원적인 불협화음의 징조는 주어진 사건을 기술하는 층위에서 발생하는 서술상의 불안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그의 소설이 가지고 있는 서사의 의미론적 구조로부터 나타난 것이다. 그의 소설에서 서사는 이미 발생한 사건과 부재하는 사건의 주체를 대리하여 해석자들이 사건에 대한 해석들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여기에 경쟁하는 해석들을 통합하는 보이지 않는 담론의 공간이 텍스트 내부에 형성된다. 담론은 사건으로부터 파생되는 의미들을 규정하고 그것을 하나의 중심주제로 이끌고 가는 힘이라 할 수 있다. 그 담론의 규정력이 경쟁하는 해석들을 통합하고 그것을 주제화되는 해석의 층위로 일순간 비약시킨다. 그에 따라 사건의 의미를 규정하는 상징성이 점차 텍스트 전체의 의미를 장악하고 지배한다. 이를 《당신들의 천국》의 예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sup>12)</sup>

《당신들의 천국》에서 텍스트의 앞 부분에서 ‘동상’은 사건 속에서 펼쳐지는 모든 행위를 동상의 의미론으로 귀결시킨다. 조백현 원장의 나환자들을 위한 행위들은 그것을 바라보는 이상욱의 시선에서 자신의 내적 욕망을 실현시키고 그를 통해 타인들의 의식 속에 하나의 동상을 세우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제시대 자신의 동상을 건립하기 위해 나환자들을 강제노동에 내몰았던 주정수 원장에게는 물리적 실체였던 동상이 내면의 동상으로 자리를 옮길 때 이청준 소설에서 중요한 서사적 구조

12) 《당신들의 천국》은 소록도에서 병원장으로 일하면서 오마도 간척사업을 한 실제 인물인 조창원 원장의 행적을 모델로 한 소설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사실의 서사적 해석이라는 본 논문의 주제와 연관된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당신들의 천국》을 사실 해석의 문제보다 주제의 서사 형상화 방식에 한정지어 논하고자 한다.

를 구축하는 기제로서의 상징적 관계가 서사행위를 지배하기 시작한다. 조백현 원장이 나환자를 위해 이루려는 꿈은 자신의 동상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모든 사건들을 의미화한다. 그리고 조원장의 행위가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점차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소설의 후반부에서 동상의 의미론적 중심 위치는 ‘천국’으로 이전된다. 원장의 선행이 자신의 명예를 위한 과시 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시혜의 대상이 되는 나환자들에게 강제된 행복과 제한된 자유만 보장하는 것이라면 소록도를 진정한 나환자의 천국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낳고 그것은 소록도를 탈출하는 이상욱의 행동에 의해 구체화된다.

‘동상’과 ‘천국’이라는 상징적 의미와 그것을 구현하는 것으로서의 사건의 지위라는 의미론적 주중관계는 이청준 소설에서 고유한 서사문법을 구축하는 방법론이다. 그것은 초기소설들에서 보였던 내부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외부 관찰자들의 외부 담론이라는 이중구조의 서사형식에 내속하는 의미론적 구조라 부를 수 있다. 그런데 서사를 상징적 의미 속에 종속시키는 방식은 주체의 내면에 기반할 때에는 현실을 하나의 고유한 관점으로 포착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것은 개인적 진정성의 차원을 드러내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그러한 관계를 보편적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미적인 양식 내에서 수용할 수 있다. 미적인 차원이라 말한 것은 칸트적인 의미에서 미란 어떤 목적성을 그 안에 내포하지 않고도 판단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사가 사적인 해석관계를 떠나 객관적 사실의 영역에서 작동할 때 그리고 공적인 이념의 형태로 제시될 때는 해석적 차원이 달라진다. 상징화된 내적인 진실은 그 보편타당성을 상호주체적인 토대 위에서 승인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그가 <지배와 해방>에서 제기한 이후 반복적으로 주제화한 ‘소설쓰기의 이율배반’을 낳는다. 드러내되 공적인 언어 외부에서 드러낸다는 이 소설적 이율배반은 그 주제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요구에 부딪친

다. 내적 진실은 논리로서는 검증될 수 없으나 어떤 방식으로든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서술상의 불안은 서사 속에서 빈번하게 반복되는 의심과 강박적 증언에의 요구들이 그의 논증적 과정을 잠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과거의 사건들은 그 자체로 드러나지 않는 내적 진실을 가지고 있는 반면 그에 대한 해석들은 그 본질에 가 닿을 수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론은 이 해석적 진실에 의해서만 그 가치를 보장받는다. 사실은 그저 그 사건의 물리적 존재만을 확인해줄 뿐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 사실은 해석자들에 의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추론되고 정립된다. 반면 진실은 그것이 하나의 해석에 의해 지지되지 않는다 해도 그 존재 자체를 의심할 수 없는 것으로 주어진다.

텍스트에 내속하는 이 불안정성은 주요인물들이 전개해나가는 담론의 과정을 쫓아 해석해나갈 때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주요한 해석이 자신의 내적인 과정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자기순환의 방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텍스트를 하나의 주제로서 지배하고, 글쓰기의 역할적 차원을 제시하고자 하는 외부의 해석적 시선이 그 주제적인 양상에 있어서 내적 진실에 대해 비판적인 결론을 도출해내지만 그 과정에서 담론은 과잉될 정도로 지배적인 장악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보이지 않는 언술 행위의 주체로서의 이 시선은 의도한 해석의 경계 내부에 해석이 머무르도록 강압적인 방식으로 텍스트를 지배한다. 이 시선은 비현실적으로 의도되고 연출된 상황 속에서 등장인물들이 나누는 내적 진실의 논변들을 통해서 그 세계 내적 의미를 추출해내는 근원적 힘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소설의 주제적 의도가 분명해질수록 담론의 전개과정 속에는 어떤 결핍의 요소가 드러난다. 한편으로는 내적 진실이 하나의 도그마가 되어가는 경향이 나타나고 다른 한편에서 그것이 도그마처럼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기묘한 형태로 등장인물들의 발화 속에 착종되어

나타난다.

동우가 걱정한 것처럼 미리 통기를 한 것이 외려 일을 그르쳤다는 말 투였다. 부자의 일이 귀찮아 사내가 부러 발뺨을 하고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았다. 사내 역시 일이 그렇게 된 것이 심히 민망스러운 듯 노인을 원망스러워하는 기미가 역력했다. 그리고 그 부자의 사정을 진심으로 거들어주고 싶은 듯 예상외의 친절까지 베풀어 왔다.<sup>13)</sup>

여선생은 그제서야 진짜 사정을 알아차린 듯 뒤늦은 불안기 속에서 새삼 아버지를 돌아보고 물었으나, 이미 노질에 힘을 태우기 시작한 아버지는 이제 와서 그런 건 물어 뭣 하느냐는 듯 아랑곳이 없었다. 그리고 종선이 그렇게 보아 그런지 뒤늦은 불안기와 말없는 호소기가 번져 오르기 시작한 여선생을 실은 배는 그런 식으로 유유히 흰 물살을 가르며 섬을 향해 가물가물 모습이 멀어져 가고 말았다.<sup>14)</sup>

인용에서 밑줄 친 부분은 그의 소설에서 서사전개의 전형적인 서술양태를 보여준다. 말투에서 비치는 인물의 의도가 그 인물을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다. 그리고 그것은 ‘역력’한 ‘기미’로 읽히거나 그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다. 상대의 말투를 통해 그 의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동우의 태도는 ‘-인 듯하다’, ‘-인 것 같다’와 같은 추측하는 서술을 통해 더 분명해진다. 이청준이 즐겨 사용하는 ‘불안기’, ‘호소기’, ‘비웃음기’ 등의 인물의 기색을 살피는 표현은 단순히 한 인물의 태도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제한되지 않고 텍스트 전체의 분위기를 형성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한 소설 작품에 국한되지 않으며 발표 시기와 주제의 특성을 떠나 그의 전체 작품들에서 발견되는 서술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상대의 알 수 없는 표정 속에 잠재된 의도는 무엇인가를 알아내고자 하는 노력이 모든 인물들의 발화에서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인

13) 이청준, 『흰옷』, (열림원전집, 2003), 143쪽

14) 이청준, 위의 책, 96쪽

물들의 성격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소설의 서사가 사건 속에 잠재된 본질을 찾는 것인 동시에 그 사건을 증언하는 인물 내부에 잠재된 의미를 ‘추궁’하고 ‘증거’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서술 상황은 이청준 소설의 구조에서 특징적인 것이다.

나는 이미 사후의 종합과 주장 위에서 있는 그 과거형의 마지막 문장을 지워버리고 현재형으로 다시 생각과 주장을 되돌려놓으려 안간힘을 다한다. 작가에 대한 어떤 확정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스스로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당시의 그와 그의 일들을 정직하게 만나고 느끼려 애를 쓴다.<sup>15)</sup>

나는 다시 생각을 멈춘다. 생각과 진술이 어느새 현재형에서 다시 과거 회상으로 떨어져 가고 있었다. 사후 종합에 의한 판단과 주장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억지로 끌어온 현재형 기술도 형식적인 시제만 그렇게 쓰여질 뿐 의미 내용은 여전히 종합과 주장 위에 머무르고 있었다.<sup>16)</sup>

《제 3의 현장》에서 인용한 이 부분은 작가의 말이 아니라 등장인물인 백남희가 오검사 앞에서 구종태의 자살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수기를 쓰는 대목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작가의 직접적인 자기의사 표출로 이해해도 다름이 없다는 점은 그의 소설관과 이러한 진술이 동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백남희는 구종태에 의해 자신의 집에 구금된 사건을 과거형 시제를 통해 서술해서는 그 의미가 전달될 수 없다고 믿는다. 과거형으로 제시되는 ‘사후종합’이란 공식적인 사실 기술일 뿐 그 내적 진실을 밝혀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시제 표현을 통한 현재적 관점에서 진술해 보려하지만 그 역시 ‘형식적인

15) 이청준, 『제 3의 현장』, (열림원전집, 2003), 29쪽

16) 이청준, 위의 책, 34쪽

시제만 그렇게 쓰여질 뿐 의미 내용은 여전히 종합과 주장'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절망한다. 여기서 백남희가 구사하는 어휘들은 추상적이고 분석적인 것으로 그 인물의 현실성에 어울리는 것이라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 이를 오히려 작가 자신의 심정적 표현으로 간주해도 큰 차이가 없다. 《제 3의 현장》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백남희와 오점사의 대화는 하나의 소설론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청준의 소설의 후기에서 밝힌 것처럼 '공식적 설명어'로 제시될 수 없는 '심정적 고백어'의 문제를 소설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여기에는 하나의 역설이 드러난다. 이 소설 전체가 '심정적 고백어'에 대한 추상적 논증과 설명으로 채워져 있는 까닭이다.

그의 소설에서 인물들의 발화가 개별 인물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동일한 어조를 보인다는 점도 이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개별 인물들의 발화는 그 자신의 말을 넘어서 자리에서 들려오는, 소설을 주체화하는 텍스트의 목소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이는 왜 이청준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사변적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해답의 단서를 제공한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개별 상황에서 말하지 않고 그 상황의 진리가에 근거하여 말한다. 진실이 무엇인가를 추궁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논변을 제시하며 그러한 증명과정을 통해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이 상징적 진실에 강박적으로 매달린다.

그런 점에서 소설은 보편담론 속에서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진실을 보여주어야 하지만 그것은 '공식적 설명어'로는 제시될 수 없다는 명제는 역설적으로 추궁과 논증의 수사학의 심층 의미를 밝혀준다. 보이지 않는 타자의 내면 의도에 집착하고 그 기미를 읽어내려 하는 인물들에 대한 서술의 양상은 서사를 통해 구현된 작가의식의 한 투영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본고에서 문제적으로 살펴본 것은 이청준 소설에 나타나는 역사적 사실의 서사 형상화 방식이었다. 역사의 문제는 이청준의 소설에서 공적 사실과 사적 진실의 대립관계로 드러난다. 그리고 이 대립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객관적 사실을 넘어서는 내적 진실의 문제이다. 그런데 이 내적 진실은 주체의 사적 욕망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것인 까닭에 항상 증명에의 불안에 시달리게 된다. 따라서 서술 속에 내재한 해석에 대한 불안은 소설 속에서 주체의 사적 동기를 지양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그대로 반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사적 동기는 내적 진실을 지향하면서 소유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의 차원을 극복하려는 것으로 나아갈수록 부정된다. 그것은 다만 서술의 차원 속에서 증상적으로만 드러난다. 이청준의 후기소설들에서 ‘자유의 질서로서의 지배’라는 소설적 이상은 역사와 사회 현실의 모순성을 숭고한 화해로 승화시키려는 서사의 표층 주제 영역에서는 성취된다. 그러나 이러한 내적 진실의 차원은 주체의 내면에서는 가능한 것이 될 수 있으나 역사와 사회의 구체적 현실에서는 하나의 추상적 담론에 그칠 뿐이다. 여기에는 표면적으로 사적 욕망을 위한 자리가 부재하는 까닭이다. 이러한 한계를 작가는 잘 알고 있기에 그것은 언제나 내적인 불안을 증상적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된다.

주제어 : 발화의 주체, 발화행위의 주체, 역사, 주제화와 서술양상, 공적 사실과 사적 진실, 증언과 논증, 증상과 불안정성.



## 참고문헌

- 이청준, 『이청준소설 전집』, 열림원, 2002.
- 김병익, 「전반적 검토-원체험과 지성의 변증」, 『이청준』, 은애, 1979. 6쪽.
- 김현, 「이청준의 두 개의 장편소설」, 『김현전집 14』, 문학과지성, 1987, 78쪽.
- , 「대립적 세계인식의 힘」, 『이청준』, 은애, 1979. 13-31쪽
- , 「자유와 사랑의 실천적 화해」, 『이청준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 1999, 218-233쪽.
- 우찬제, 「권력의 역설, 그 문학적 지평」, 『세계의문학』, 1992. 가을호, 117-140쪽.
- 윤지관, 「억압사회에서의 소설의 기능」, 『실천문학』, 1992. 봄호, 150-174쪽.
- 정호응, 「씻김굿의 새로운 형식」, 『흰웃』, 열림원, 2003, 244-254쪽.
-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 『S/Z』, 김웅권 역, 동문선, 2006, 212-230쪽.
- 프랑크 모레티(Franco Moretti), 『근대의 서사시』, 조형준 역, 새물결, 2001, 48-65쪽.
- 슬라보예 지젝(Slavoj Žižek), 『부정적인 것과 함께 머물기』, 도서출판b, 2007, 66-77쪽.
- 알란카 주판치치(Zupancic, Alenka), 『실재의 윤리』, 도서출판b, 2004, 217-258쪽.

<Abstract>

## History Analysis in novels by Lee, Cheong-jun

Lee, Hyun-Seok

History analysis in Lee Cheong-jun's novel is directly related to his view of novel. Invisible internal truth is in contrast to the objective fact of history in his novel. False history created by heartiest wish of people is presented more important than the defeat history of Baekjae in «Dancing Priest». It is also repeated in «White Dress» where Haewon exorcism satisfying grudge of left-wing workers who passed away during Korean war intended to preserve the meaning of their life outside the history. Contrasting relation between public truth and private truth is related to the fact that characters have suffered from the continuous demand of self-demonstration in the epic process. It is because it should continuously demonstrate that invisible truth is more meaningful than fact. Descriptive instability shown in Lee Cheong-jun's novel is attributable to this. It is presented as the form of internal instability but the difference between description and subject gets deepened in the later part where novel topic is regarded more important than the internal feature of character itself. It is because the subject pursues resolution and settlement of conflict but the writing style still suffers from the anxiety of demonstration.

Key Words : Subject of Locution, Subject of an Locution Act, History, Topicalization and an Aspect of Description, Public Truth and Private Truth, Evidence and Demonstration, Symptoms and Insecurity.